

年 이자 수천만원...목포 '건맥 1897협동조합' 존폐 위기

원도심 활성 선도 모델...184명 활동
금리 1.74→5.75% ↑·500만 원금상환
박 이사장 "시민자산화 모델 지켜달라"

목포 원도심 활성화를 이끌어 온 '건맥1897협동조합'이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과 대출 상환 압박으로 존폐 위기에 놓였다.

12일 건맥1897협동조합에 따르면 박창수 이사장은 지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지원 사업이 공식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공동체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검토를 호소했다.

이 조합은 1958년 설립돼 전국 유통을 주름잡던 국내 최초의 견해산물 상가거리가 대기업 중심의 유통 구조 변화로 쇠퇴하자,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주민과 상인들이 직접 출자해 만든

'시민자산화 모델'이다. 조합원들은 지난 2019년 지역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건맥축제'를 개최 하루 6천여명이 찾으며 성황을 이룬 뒤 이를 발판 삼아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현재 184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5회에 달하는 다채로운 축제를 개최해 약 5만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10억원 이상의 상권 활성화 파급 효과를 창출해 냈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가 높이 평가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은 물론, 행안부 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다.

하지만 지난 2020년 행안부 지역자산화 지원 사업을 통해 '마을 펍'과 '스테이 공간' 매입 명목으로 실행한 4억7천만원의 대출이 현재 조합의 목을 조르는 치명적인 부채덩어리 됐다.

사업 초기 1.74%에 불과했던 대출 금리가 최근



목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주민과 상인들이 직접 출자해 출범한 건맥1897협동조합이 최근 금리 인상과 원금 상환 부담으로 존폐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2024년 열린 건맥페스티벌 현장 모습. <건맥1897협동조합 제공>

5.75%까지 치솟아 연간 이자 부담만 수천만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다.

또 지난해 7월부터 매월 500만원에 달하는 원금 상환의 이중고를 겪으면서 자생력을 갖춘 협

동조합조차 감당하기 벅찬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했다.

조합은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해 예기치 못한 국가적 사회 재난 상황들이 겹치면서 시민 주

도의 오프라인 행사 수익이 급감해 경영 환경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에 조합원들은 사비를 털어 축제의 명맥을 간신히 유지해 왔으나 이제는 완전한 한계에 봉착했다며, 원금 상환 5년 유예와 이자율을 초기 약정 수준인 1%대로 조정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다.

이에 주무 부처인 행안부는 지난해 7월 조합측의 호소문에 대해 해당 사업의 협약 기간이 지난 2022년 종료됨에 따라 대출 기관인 NH농협은행과 직접 협의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는 "이 요청은 부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 철학을 실현한 시민자산화 모델이 지속되기 위한 합리적인 조정 요청"이라며 "해당 모델이 지역 곳곳으로 확산돼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와 공동체의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나주시는 지난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 나주방문의 해 범시민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나주시 제공>

"관광객에 좋은 추억 선사"...나주시민 서포터즈 출범

유관기관·직능단체 200여명 참여
환대 교육으로 관광 수용태세 강화

나주시가 '2026 나주방문의 해' 성공 추진을 위해 서포터즈를 출범시키며 시민 참여 기반의 관광도시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2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직능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나주방문의 해 범시민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2026 나주방문의 해'를 맞아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관광 수용태세를 강화하고 지역 차원의 환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범시민 서포터즈는 나주문화재단과 동시대

학교 등 유관기관을 비롯해 이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협의회, 자원봉사단체 등 사회단체와 숙박업협회, 외식업협회, 상인회, 예술인단체 등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행사에 참석한 기관과 단체 관계자들은 관광도시 나주의 첫인상을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공유하며 '2026 나주방문의 해' 성공 개최를 위한 공동의 의지를 다졌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방문객 친절 응대와 관광 홍보 확산, 지역 현대 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시민이 함께 만드는 관광도시 실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결의문을 낭독한 범시민 서포터즈 대표단은 "환한 웃음과 친절한 응대로 나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사할 수 있도록 나주의 얼굴인 시민 서포터즈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이번 범시민 서포터즈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2026 나주방문의 해 추진단' 운영 체계를 연계한 핵심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서포터즈는 관광 수용태세 개선 활동과 방문객의 해 홍보 캠페인, 관광정보 공유 등 시민 참여형 홍보 활동을 펼치며 관광도시 나주의 현장 홍보 역할을 수행한다.

나주시는 민·관 협력 기반 관광 홍보 체계를 구축하고 체류형 관광 전환을 통해 '500만 관광도시 나주' 실현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범시민 서포터즈 출범은 시민이 함께 만드는 관광도시 나주의 출발점"이라며 "시민 참여와 환대 문화 확산을 통해 '2026 나주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준환 기자

함평군립미술관, 체험형 미술 교육 '호응'

오는 28일 설박 작가 한지 콜라주 수업

함평군이 군립미술관 기획전 참여 작가와 지역 주민이 소통하는 맞춤형 미술 교육을 통해 특별한 문화예술 경험 선사해 나갔다.

12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립미술관은 현재 전시 중인 기획전 '확장의 순간: 설박·이성경' 출판작가와 연계해 오는 28일 설박 작가와 함께하는 한지 콜라주 창작 수업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에서 수강생들은 작가가 직접 들려주는 작품 설명을 듣고, 맥 작업이 입혀진 한지를 찢어 붙이는 실습을 통해 독창적인 화면 구

성 방식을 배우게 된다.

앞서 미술관은 지난달 28일 전시 참여 작가인 이성경 작가와 함께 전시장 투어와 목탄 그리기 수업을 진행해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당시 참여자들은 작가의 지도를 받으며 목탄



특유의 거친 질감과 명암을 활용해 자유로운 선과 면을 도화지에 표현해 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함평군립미술관 관계자는 "관람객이 단순한 작품 감상에 그치지 않고 작가의 실제 작업 과정을 직접 경험하도록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어린이를 위한 다채로운 전시 연계 프로그램을 꾸준히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함평군립미술관 누리집 또는 미술관 (061-320-227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함평=기영규 기자

완도군-조선대, 해양바이오 창업 지원 본격화

지역 학생 대상 맞춤 프로그램

이론·실무 겸비 전문 인력 배출

완도군과 조선대산학협력단이 지역 학생들의 해양바이오 분야 취업과 창업을 돕기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에 본격 돌입했다.

12일 완도군에 따르면 조선대 산학협력단과 지난 10일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에서 완도수산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K-해양바이오 창업단계별 맞춤형 지원 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지정에 따라 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키우고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수행 기관인 조선대 산학협력단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체계적인 단계별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우선 3-4월 실전 창업 및 아이디어 제작 교육을 시작으로 5-6월 해양바이오 첨단 장비 실습 및 공모전 참가, 7-8월 직무 연계 역량

강화 및 산업체 현장 실습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조선대 해양헬스케어 유효성 실증센터의 첨단 연구 장비를 학생들에게 개방하고, 지역 선도 기업과 연계한 현장 중심 직무 체험 기회를 제공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맞춤형 전문 인력을 배출할 방침이다.

이한용 조선대 산학협력단 센터장은 "대학의 우수 인프라와 지역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학생들이 지역 산업 핵심 인재로 성장하는 탄탄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우 완도 부군수는 "학생들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미래 인재 양성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완도=윤보현 기자

영광군, 염소 사육 전문인력 40명 육성

'제19기 농업인대학 염소반' 모집

20일까지...사양 관리·경영 교육

영광군이 지역 축산 농가의 전문성 향상과 소득 다변화를 이끌 제19기 영광농업인대학 염소반 교육생을 본격 모집한다.

12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20일까지 거주자 및 귀농·창업 예비 농업인을 대상으로 염소반 교육생 40명 내외를 선발한다.

이번 과정은 최근 급증하는 염소 사육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합리적인 농장 경영 능력을 갖춘 축산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오는 28일부터 9월20일까지 6개월간 총 20회, 75시간에 걸쳐 영광군농업기술센터 대

강의실과 현장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세부 커리큘럼은 염소 사양 관리, 질병 예방, 번식 및 출하 요령, 농장 경영 기술 등 영농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교육생들은 6개월의 과정을 통해 염소 사육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게 된다.

신청은 모집 기한 내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재욱 영광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역 여건과 농업 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맞춤형 전문 교육 과정"이라며 "예비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사육 기술과 탄탄한 경영 역량을 완벽히 갖추는 든든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진도군, 가축 전염병 차단 예비비 긴급 투입

진도군은 12일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해 살수차 소독 지원 예비비 3천만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밝혔다.

군은 확보된 예비비를 활용해 가금류 및 돼지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살수차 소독을 진행하며 선제적인 방역에 나선다.

특히 축사 지붕과 농장 진입로 등 방역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 소독을 실시해 현장 대

응력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거점 소독 시설 운영을 강화하고 농가별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진도군 관계자는 "민관 합동 방역을 통해 가축 질병 없는 청정 진도를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농가에서도 자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도=박세권 기자



해남군,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운영

오는 11월까지 4개 반 밀착 지원

해남군이 결혼이민자들의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에 본격 나섰다.

12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10일 가족센터에서 결혼이민자와 가족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한국어 교육 개강식'을 가졌다.

이번 개강식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주 2회 진행되는 한국어 교육은 수강생들의 사전 배치 평가 결과에 따라 심화반, 중급반, 고급반, 취업 대비반 등 4개 반으로 나뉘어 맞춤형으로 운영된다.

특히 군은 연중 끊김 없는 언어 교육을 위해

지난 2024년부터 준비를 추가 투입해 왔으며, 다문화가정 자녀 분유 구입비와 행복 장려금 지원 등 실질적인 복지 혜택도 촘촘하게 병행하고 있다.

이밖에 한국어 교육을 비롯해 가족센터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가족센터(061-534-0017) 또는 해남군 가족이웃센터 통합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언어는 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서 막힘없이 소통하고 자립 기반을 다지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다문화가족이 든든한 지역 구성원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밀착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